

TU Graz 교환학생 보고서

1. TU Graz 소개

TU Graz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공과대학입니다. 그라츠는 학생 인구가 많고, 도시 내에 공과대학인 TU Graz, 그외 인문, 예술 분야 등이 있는 Uni Graz의 건물이 넓게 퍼져있어 젊은 분위기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제가 TU Graz를 선택했던 이유는 공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 건축학이 있는 대학이었고, 오스트리아가 유럽 내로 여러 군데 여행하기 좋은 위치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교환학생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2-1. TU Graz 지원

TU Graz 지원을 결정했다면, 먼저 공과대학 내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플 성적 기준이 TU Graz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U Graz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토플 성적이 준비되었다면 공대 국제 교류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만 준비하면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당 5명으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저도 지원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2024년 2학기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2명만 지원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 보험

오스트리아에 교환학생 온 학생들은 ÖGK 라는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는 오스트리아에 도착 후 3주까지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기간은 TU Graz에 와서 ÖGK를 가입한다는 서류를 줍니다. 여행자 보험과 TU Graz에서 받은 서류 두 개가 있으면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환학생 시작 전 여행을 한다면 그 기간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ÖGK가 비싸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입국 이후에 보험 가입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아프지도 않고 해서 보험 가입을 안 했는

데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ÖGK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ÖGK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기숙사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숙사가 전부 사설로 운영됩니다. 방 구조도, 비용도 월세방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기숙사를 OEaD에서 운영하는 Steyrergasse에 있는 기숙사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학과 학생에게는 Steyrergasse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학과의 경우 대체로 Alte Technik(한국어로 옛날 공대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Neue Technik(새로운 공대라는 뜻입니다.)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데 Neue Technik는 걸어서 5분, Alte Technik는 걸어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라츠에서 가장 변화가가 Jakominiplatz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트램 3정거장이면 갑니다. OEaD 기숙사가 빠른 메일 답변과 2주마다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 등 장점이 있지만 방 크기와 컨디션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Steyrergasse 내에서 2인 플랫을 사용했고, 그 외에도 1인, 3인 플랫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EaD 기숙사는 혼성 기숙사입니다. 그렇지만 기숙사 신청할 때 같은 성별과만 플랫을 같이 쓰고 싶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슷하지만, 3인 플랫의 경우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탁의 경우 건물 지하에 세탁방이 있습니다. 세탁 한 번 할때 2.75유로 이고 건조기는 무료입니다.

2-4. 비자 발급

비자 발급이 아마 교환학생 가기 전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은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준비할 것! TU Graz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비자 관련된 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간에 여유가 있어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인데 비자 발급을 위해서 열어둔 시간이 별로 없고 예약이 금방 마감됩니

다. 저의 경우 급하게 준비해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대행사를 통했습니다. 대행사를 통하게 되면 예약이나 처리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더 내야합니다.(12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서 대사관에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교환학생 생활

3-1. German Intensive Course

TU Graz에서는 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 겨울학기의 경우 10월 1일에 학기가 시작해서 9월 2일부터 German Intensive Course를 시작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분들은 정규 학기 시작에 맞춰서 도착해도 됩니다. 독일어 코스의 경우 3주 동안 평일 9~12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독일어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내 생활에 대해 배우고,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힘든 일정이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마트, 음식점 등에서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일어는 배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에 정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고, 수업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계좌 개설을 하면서 은행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독일어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German Intensive Class Friends

같이 은행에 가서 따져가며 해결해주셨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 오스트리아에서 생활을 시작하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2. 교통

그라츠 내에서 저 같은 경우 Top Ticket이라고 하는 6개월간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180유로였던 것 같고 그라츠 뿐만 아니라 Steiermark 지역을 포함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갈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Top Ticket이 있으면 할슈타트까지 1유로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학기에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특히 현지 학생들은 자전거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라츠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차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서는 ÖBB라는 철도회사가 운영합니다. ÖBB에서는 만 25세 미만 학생에게 Jugend Vorteils카드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19유로를 주고 사면 ÖBB의 모든 기차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 한 번 갔다오기만 해도 이득이니 꼭 사시길 바랍니다.

3-3. 유심, 계좌

통신비의 경우 저는 거의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 spusu라는 통신사에서 신규 가입자는 무료로 6개월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걸 통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유심에 관해서는 TU Graz OT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가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통신사를 고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통신사는 EU 내의 국가에서는 로밍을 해서 오스트리아 내에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지역이더라도 EU가 아니면 통신 요금이 추가됩니다.

저는 Erste Sparkasse 라는 은행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토스뱅크 카드, 트레블 월렛 등 환전 수수료 없는 카드가 잘 되어 있어서 현지 계좌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ATM 인출,

현지에서 온라인 결제 등 은근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계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라츠 내에서는 Bank Austria, Erste Sparkasse 이 두 은행이 가장 지점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좌 또한 OT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OT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수업

건축학과의 경우 Bachelor 와 Master 코스가 있고 여기서는 학사가 3년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기준 6학기를 수강했다면 Master 코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Bachelor 코스는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과 Elective Course가 있고, Master 코스도 디자인 스튜디오와 Specialization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학교의 스튜디오 수업과 비슷한 것 같고 Elective Course는 2 ECTS 짜리 작은 수업입니다. 보통 과목 하나 당 수업 7-8개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Specialization은 11 ECTS이고 만약에 건축학과 학생 중에 수업을 많이 들을 생각이 있다면 꼭 3학년 이후에 오기를 추천합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 중 Bachelor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하고 Elective Course와 Master Course만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전에 TU Graz로 오면 들을 수업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총 5개의 Elective Course를 들었습니다. 수업에서는 LCA, HVAC 시스템 등 건축 교양 같은 수업이었고 수업 모두 강의 형식이 아닌 세미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팀플로 수업과 관련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업 내용도 유익했지만 그것보다 현지 학생들이 한국과 다르게 어떤식으로 교육 받고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좋



Workshop 3 (Elective Course)

은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5개의 수업 중에서 4개의 수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였어서 현재 유럽 건축의 흐름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3-5. Graz Buddies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TU Graz에서 버디를 신청하라는 메일이 옵니다. 이때 미루지 말고 빨리 버디를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버디는 TU Graz 학생 1명에 교환학생 2명이 기본인데, 저같은 경우는 버디 2명이 이미 친분이 있어서 그 두 친구와 교환학생 4명이 하나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라츠에서 가장 잘한 일이 버디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버디 친구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버디 맺어주는 것밖에 없고 그 뒤에는 서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추천합니다!



Graz Buddies



Christmas Party

4. 교환학생 소감

교환학생을 돌아보면 행복한 기억이 정말 많았지만 또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바나 과외를 못하니 금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어쩌면 사서 고생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항상 옆에

있던 가족, 친구도 없어 외롭기도 하고, 늘 먹던 한식이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환 학생 생활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즐거웠고, 스스로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 여행하면서 쌓은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큰 세계를 경험하고 온 경험이었습니다.

글에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거나 주관적인 생각이어서 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soirpark0201@snu.ac.kr 로 메일 보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